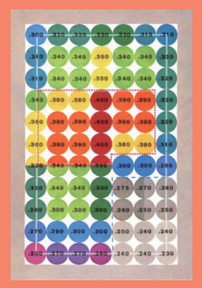
인내심을 가져라

슈퍼개미들의 잃지 않는 투자 비법 02





[스트라이크 존 77분할 타율]

워런 버핏이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 놓고 있는 사진이다. 타격하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. 투자도 마찬가지다. (출처: 테드 윌리엄스의 저서『타격의 과학The Science of Hitting』)

가치 투자를 위한 3가지 인내심

1 목돈을 마련하는 인내심

투자를 위해 잠자코 목돈을 마련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험난한 일이다.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기업을 매수하려면 평소에 투자를 위한 저축이 필요하다.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라.

2 좋은 기업이 싸게 거래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인내심

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. 좋은 기업은 매우 많다. 코스피에 거래되는 상당수 기업이 좋은 기업일 수 있다. 중요한 점은 이들 기업이 감기에 걸릴 때, 아주 쌀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.

초보자라면 싸게 거래된다고 해서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 분할로 매수하기를 권한다.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상승만 하지 않는다. 그러니 좋은 기업이 감기에 걸릴 때, 증시가 불안하거나 단기 악재로 주가가 하락할 때 몇 번 나누어서 매수하는 게 좋다.

워런 버핏의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. 바로 전설적인 타자인 테드 윌리엄스의 타율분석표다. 워런 버핏은 "한가운데 오는 공만 쳐라"고 강조한다. 정말 좋은 기회만 노려라. 야구보다 주식 투자는 훨씬 유리하다. 왜냐하면 삼진이 없기 때문이다.

3 목표 주가까지 기다리는 인내심

주식 투자 만큼 사람들을 현혹하는 시장도 드물다. 주가는 하루에도, 1초 단위로도 출렁인다. 아파트가 그러한가? 금이 그러한가?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 주가(적정 가격)를 정했다면 그 근처에 도달할 때까지 매도 버튼을 누르지 마라.

매도의 3가지 원칙

원칙 1 분할 매도하라!

적정 가격에 근접했을 때에는 몇 회에 나누어 분할 매도한다.

원칙 2 매수 시점의 투자 아이디어가 변했을 때 과감하게 매도하라!

기업의 사업 환경은 늘 변하기 마련이다. 만약 시장에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더 이상 사업에 희망이 없을 때, 혹은 예기치 못한 시장의 변화로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과감하게 매도할 줄 알아야 한다.

원칙 3 투자하기 더 좋은 기업을 발견했을 때 매도해라!

이미 매수한(보유한) 기업보다 훨씬 매력적인 기업을 발견했을 때,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도해 매력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.